

여수 석탄발전소 건립 거센 반발

시민단체 "해양 생태계 파괴·주민건강 위협" 백지화 요구 동서발전 "산단 전력 안정 공급위한 설비" 건립 강행할 듯

여수 국가산단와 공유수면을 매립해 화력 발전소를 건립하는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 단체가 본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 한국동서발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동서발전이 여수산단 내 산하 기업인 현 호남화력의 설비가 남아 오는 2020년 폐지하고, 호남화력용 공유수면을 매립키로 하는 등 대체발전소 건립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은 물론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발전소가 주변 생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건립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역 사회단체가 대응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여는 등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에서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주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건강도 위협할 것"이라며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요구했다.

여수와 광양, 순천, 화순 등 전남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최근 성명에서 "전남 온실가스 배출량의 96%를 차지하는 광양만권 지역에 화력발

전소 건립은 대기환경 악화는 물론, 온배수 유출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매립에 따른 항만 선박 통항 장애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며 발전소 건립에 반대사를 분명히 했다.

또 여수YMCA는 25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증설문제와 대응방안'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향후 발전소 건립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수시의회, 여수시, 환경단체, 주민 등 각계 대표가 관

련 주제발표를 할 예정으로 대부분 발전소 건립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동서발전 측은 '여수산단과 광양지역 산업시설의 전력수요와 안정적 공급에 대비한 조치'라며 발전소 건립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동서발전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당초 설계에서 대폭 축소하고, 석탄 비산먼지 발생 또한 선박 이송과 운반, 저장 등 모든 과정을 밀폐형으로 설비해 석탄재 발생을 최소화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서발전의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다음달 국토해양부가 중앙연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사리손으로 전통 모내기 체험 보성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3일 군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에서 전통 손 모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체험행사는 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농촌과 농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 제공)

광양시 300만 관광객 유치전

하나투어·롯데관광과 협약

광양시가 관광업체와 손을 잡고 300만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

광양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관광협회는 저점별, 업종별 회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지원을, 하나투어는 카페리 연계 관광상품 및 계절·테마별 상품, 롯데관광은 매실산업 특구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및 계절별·테마별 상품에 주력한다.

지난 1월 73년 만에 열린 광양~일분 시모노세키 배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큰 타격을 입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하나투어는 주말 다도해 크루즈 사업 운영에 나선다.

또 롯데관광은 전국 매실의 40%를 재배하고 있는 광양시의 매실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2012년 이순신 대교 개통 및 여수엑스포,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을 앞두고 남해안권 관광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6개 분야 52개 시책을 추진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y4079@

순천 조례호수도서관 27일 퓨전 대금 공연

호수와 도서관이 어우러져있는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오는 27일 오후 7시 도서관 3층 공연장에서 '쉽게! 즐겁게! 퓨전 대금 가족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전수원인 조철현씨가 아코디언, 톰 등 다양한 현대악기들과 하모니를 이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한 퓨전 대금 공연을 해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12일 개관한 조례호수

도서관은 책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국악을 아코디언이라는 친숙한 악기와 톰이라는 독특한 도구가 함께 어우러져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공연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돌산갯늪동이·순동이·신동이·짱돌이·쌈돌이 5종

종자에서 생산물까지 품종보호권 획득

여수 특산 '돌산갯' 5개 품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24일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8년여 동안 신품종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늪동이', '순동이', '신동이' 등 3개 신품종에 대한 국립 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을 따내며 이어 최근에 '짱돌이'와 '쌈돌이' 등 2개 신품종에 대해서도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이들 신품종에 대해서는 향후 20년간 종자의 수확물 및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품종보호권)를 인정받는다.

'늪동이'는 매운맛이 강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꽃대 올라오는 시기도 한달 가량 늦어 수확 절정기인 5월에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순동이'는 여름·가을이 재배적으로 생육이 왕성하고 잎이 커 수확량이 많고 감작용으로 적합하며, '쌈돌이'는 가시가 없고 매운맛이 적으며 잎이 넓어 쌈용으로 적합하고 감작용으로도 좋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통일의 북소리 울려 퍼진다

민주평통지원회의 지역협 전남대 축제 개막식 공연



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미있고 다양하게 기획됐다.

심장섭 회장은 "향후 대학생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을 찾고, 통일을 꿈꾸고 노래하는 대학생들과 여수시민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관으로 최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수 지역협의회(회장 심장섭·사진)는 25일 전남대(여수) 축제 개막식에서 '통일의 북소리 울려 퍼져라'라는 제목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청년문화위원회(위원장 제정화)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대학생과 젊은 층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통일의식

전 북

NH 유치 실패 책임론 대두

도의회, 분산배치 전략 등 문제점 총체적 점검키로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해 LH유치 실패에 따른 집행부의 '책임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24일 "LH 분사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나 유치가 실패함에 따라 이제 도정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예정"이라며 "특히 LH 결산을 통해 유치 과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판단 잘못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행부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상황에서 사장실

등 분사 일부 기능은 전주로, 나머지 기능의 80%는 경남 진주로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분산배치' 전략이 타당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이어서 집행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LH 이전 결정을 며칠 앞두고 전북도가 정부와 삼성그룹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전격 수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가 이처럼 LH 유치 실패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것은 유치 실패의 원인이 집행부의 LH 유치 전략 및 정보 부족 탓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의회 한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토공과 주공을 통폐합 상황에서 LH 전부를 요구해도 절반을 줄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장실 등 LH 기능의 20% 정도(분산배치)만 요구한 것은 처음부터 전략을 잘못 짠 것 같다"고 전략 미숙을 지적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일부 수긍을 하고 이날 도청에서 'LH 유치관련 보고대회'를 열어 "온 힘을 다했으나 원했던 것(LH 분사 유치)을 얻지 못했다. 도민의 뜻을 이뤄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단상에 나와 앞드려 큰 절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도와 정치권은 사과와는 별도로 LH 경남 일괄이전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재확인했다.

/연남뉴스



군산시 금강유역 찾는 철새 안내서 펴낸다

내년 2월까지 자료수집

군산시가 금강유역을 찾는 철새 안내서를 펴낸다.

군산시 철새조망대는 내년 '새를 찾아 떠나는 금강 천리길(가정)' 발간을 목표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금강 발원지인 장수군 뜬봉샘에서 금강 하구둑까지 길이 395.9km에 달하는 금강유역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나선다.

현재 금강유역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에 대한 도감류나 자료는 일부 지역에 한해 조사 및 연구가 이뤄져 왔고 금강유역 전체의 야생 조류에 관련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강은 대형호를 기준으로 상류지역은 산지가 발달돼 있고, 하류지역

은 농경지가 발달해 상류의 여름철새와 하류의 겨울철새 등 상류와 하류에 서식하는 조류상이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하절기에 대청호 상류의 야생조류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동절기에 대청호 하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금강유역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상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 철새조망대 관계자는 "금강유역의 야생조류 안내서는 시뿐만 아니라 금강유역에 위치하는 많은 지자체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순창군 혈당약제 기능성 고추 생산·판매권 확보

순창군이 식약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AGI활성이 일반 고추보다 4배나 높은 기능성 고추 '원기 1호'의 생산·판매권을 확보했다. AGI는 십이지장 및 소화(腸)의 상부에서 탄수화물의 최종흡수를 저하시키는 기능성 물질이다.

기능성 고추인 '원기 1호'는 농촌진흥청에서 2005년부터 고추 850여 품종을 대상으로 AGI활성을 공동조사해 지역적응성 시험 및 안정성

적으로 AGI활성이 높은 계통을 선발해 개발된 품종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원기 1호'를 구립민 산지소득 시험포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기능성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7일 전곡에서 처음으로 농촌진흥청과 국유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7년간 국내 '원기 1호'의 생산과 판매권을 확보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군산 앞바다 보물선 존재?

탐사업체, 침몰 선박서 中 주화 대량 인양... 가능성 높아

군산 앞바다에서 지난 2월부터 해저 매장물 탐사 업체가 '보물선' 발굴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침몰 선박에서 다량의 중국 주화(사진)가 쏟아져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주화가 다량으로 발견되면서 당초 이 업체가 목표로 했던 금과 인양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해 향후 인양 결과에 귀추가 모이지고 있다.

국내의 한 보물선 탐사업체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침몰한 일본 화물선의 금괴 찾기에 나선 것은 지난 2월, 충남 보령에 있는 이 업체는 당시 6개월 기한으로 군산 지방해양관청과 군산시로부터 공유수

면점용 사용허가와 매장물 발굴 승인을 받아 발굴에 나섰다.

이 업체가 발굴할 예정이었던 선박은 일본 화물선인 '사마마루 12호(253t 추정)' 이 선박은 1945년 7월께 금괴를 싣고 항해하다가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와 비안도 사이 북위 35도 동경 126도 해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다각적인 검토 끝에 이 화물선에 당시 10t 이상의 금괴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양작업을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해저에 침몰한 이 선박에서 3-4t의 중국 주화와 은



화, 심지어 멕시코 등 외국 화폐 등이 인양됐고, 이 주화들이 현재 군산지방해양관청 건물 지하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이 선박에서 계속 주화 인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15억~20억원어치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중 폭격된 것으로 알려진 이 선박은 내부 자체 조사결과 당시 출항지가 중국이 아닌 충남 장항이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군산 자유무역 입주 기업 채용박람회

군장 국가산단과 군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25일 군산 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채용 박람회에서는 군산 자유무역지역과 군장산단에 입주한 10개의 우수기업이 참여해 11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직 희망자가 기업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당일 행사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서류전형과 함께 면접을 거쳐 채용여부가 확정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신관놀이 열두마당' 공연

국립 민속국악원 '신(新)관놀이 열두마당' 공연이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일 넷째 주 토요일 4시 남원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진다.

28일 공연은 판소리 수궁가로 송순섭(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명창과 살풀이춤에 남성

무용가의 대표주자인 정재만 명수가 출연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신관놀이 열두마당'은 명인의 연주, 명무의 춤, 명창의 소리와 더불어 민속 국악원의 신명난 창작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중고가구·가전제품 저소득층에 지원

정읍시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가구와 가전제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지원한다.

시는 배출되는 중고가구·가전제품을 읍·면·동주민센터나 환경관리과 또는 '아름다운 가게'(063-536-5225)에 연락하면 기부가능 여부를 판단 수거한 후 저

소득층에게 무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고가구·가전제품 기부 접수 및 재활용센터 홍보를 담당하고, 재활용센터는 기부접수 및 접수물품의 수거를 맡아 무상 지원을 맡는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육

김제경찰서(서장 조응식)는 지난 20일 언어 및 거동불편 등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 집 원아 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교통경찰차와 순찰 오토바이를 시승하고 무

전기 응대 체험을 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건너기 요령 등을 배웠다.

김제경찰은 원아들에게 아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야광 배지를 선물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성기자 hnews@